

도입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 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2.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3.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할 무슨 일이 있을까
(후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I by faith can walk with God's victorious band.
Though so called "real proofs" elude my ears and eyes
On the promises of God I firmly stand.
2. However things may look to this poor, human sight
If we trust His witness given, with faith in Him still,
Then while we live undoubting, calm within His might,
In the Lord our deepest longings He'll fulfill.
3. Faithful is God Who swore, by His own holiness,
All the precious words to Jesus' followers given!
Then, unto us who trust and Jesus' name confess,
What shall be impossible in earth or heaven?

Walk we onward; walk in faith, believing!
Press we on, bravely on! Cast off doubt and fear!
Press we heavenward, through our faith receiving
Proofs more sure than any known to eye or ear!

본문 다니엘서 3:16-18

-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 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Daniel 3:16-18

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17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교 과 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을 때, 모든 사람은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군중 속에서 쉽게 동조할 수 있었고, 순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반항적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타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종종 우리를 소수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용기는 모두가 고개를 숙일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두려움이 마음을 바꾸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차분하고 담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기적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 근거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으며, 결과가 보장될 때만 순종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순종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지는 않으며,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네 번째 인물이 나타나고, 불은 그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상함 없이 걸어 나올 때, 놀란 이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실한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진실하게 서는 선택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뢰에 뿌리내린 순종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를 소수로 만들 수도 있고, 큰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믿음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설교

When King Nebuchadnezzar sets up the golden image, everyone is expected to bow. The crowd is overwhelming, the pressure is intense, and obedience seems easy if you simply blend in.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tand out not because they are rebellious or loud, but because they refuse to compromise their loyalty to the one true God. Following God often places His people in the minority. Courage begins when we choose faithfulness even when we stand alone. The king gives them a second chance, hoping fear will change their minds. Their response is calm, respectful, and unwavering: "Our God is able to deliver us... but even if He does no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Their courage is not based on a guaranteed rescue, but on trust in who God is. Obedience to God may come at a cost, and faith that only obeys when the outcome is secure is not true faith. They are thrown into the fire, reminding us that obedience does not always remove suffering, nor does it mean God is absent. In the furnace, God meets them. A fourth figure appears, and the fire loses its power. When they walk out unharmed, it is the king—not the faithful servants—who is left astonished. Their courage becomes a testimony. God's glory is revealed not through compromise, but through faithful obedience. Choosing to remain true to God becomes a witness to everyone watching.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fear; it is obedience rooted in trust. Following the one true God may put us in the minority and may cost us deeply, but God uses courageous faith to reveal His presence and power. Faith that stands firm in the fire becomes a light to the world.

나눔 질문

1. 모든 사람이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 학교나 직장 혹은 일상에서 남들은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망설여졌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Just as everyone took it for granted to bow down to the golden statue, share an experience from school, work, or daily life where you hesitated to follow the crowd because of your Christian faith.
2. 내가 원하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요?
Can you still trust God even when the results you desire do not appear immediately?
3.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the 'God who is with us' in the midst of a fiery furnace of suffering?

마침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곁에 찾아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through today's message, we have realized that true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fear, but the choice to remain obedient to the end through our trust in You alone. Grant our family the faith that confesses, "Even if He does not." Even when the results we desire do not appear immediately, let us not doubt Your goodness. In the midst of the fiery furnaces of life, help us to discover the Lord who comes to us and walks by our side. As we refuse to compromise with the world and keep our faith, let our lives become instruments that demonstrate Your living presence. We entrust our lives for the coming week into Your hand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기도 제목

1.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벽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 친구처럼 차분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Even if my prayers are not answered in the way I desire, let me not doubt Your goodness and Your perfect plan. Help me to stand firm in my faith with the same calmness and boldness as the three friends.
2.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는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Grant all our family members a pure heart that remains loyal only to You, even amidst the pressures of this world.
3. 고난 중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Through a faith that refuses to compromise even in times of suffering, let us bear witness to the living God to the entire world.